

소로우의 오두막에 사는 안토니아: 『월든』의 관점에서 『나의 안토니아』 다시 읽기*

이 준 영

단독 / 영남대학교

[국문초록]

윌라 캐더의 네브래스카 삼부작 중의 하나인 『나의 안토니아』는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며 환경 그 자체가 되는 생태학적 상상력을 구현하려는 대표적인 작품으로 평가된다. 인간은 노동을 통해서 자연의 일부로서 생태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며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생태학적 이상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노동은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안토니아가 행한, 시장과 자본을 위한 것이 아닌, 자연 친화적인 본질적 노동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에 대해 소설 속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소설의 유일한 화자인 짐 버든은 비록 중서부 초원에서 안토니아와 함께 보낸 어린 시절의 추억을 공유하고 있지만, 거대 자본을 위해 일하는 변호사로서, 안토니아의 본질적 노동을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대초원의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가족농장을 개척한 안토니아의 본질적 노동에 관해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가 그의 대표작인 『월든』에서 논한 생태적인 노동에 관한 담화를 바탕으로 논하려 한다. 소로우는 “자발적 가난”의 정신으로 콩코드 의 월든 호숫가에서 오두막을 짓고, 타락하고 과도한 노동이 아닌 자연과 상호교감하는 본질적인 노동을 하면서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법칙”을 추구하고 “삶을 모든 정

* 이 연구는 2022년도 영남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한 것임.

수”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렇게 볼 때 안토니아와 소로우는 자연 속에서 단순하지만, 자족적인 삶을 실현하기 위해 본질적 노동을 실행한다는 의미에서 생태환경주의의 진정한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

주제어: 본질적 노동, 환경주의, 생태학, 임금 노동자, 가족 농장.

I. 들어가며

미국의 증서부 대초원에서 펼쳐지는 윌라 캐더(Willa Cather)의 대표작인 『나의 안토니아』(*My Antonia*)는 보헤미아 출신의 안토니아 쉬메르다(*Antonia Shemerda*)라는 한 여인의 굴곡진 인생을 중심으로 펼쳐지지만, 소설의 서사는 주인공 자신을 포함한 여러 등장인물의 일화로 연결되는 에피소드 구조로 되어있다.¹⁾ 소설에서 그려진 여러 이야기 중에서 가장 뜬금없고 당혹스러운 사건은 아마도 “부랑자”(tramp)라고 흔히 불리는 어느 떠돌이 노동자의 갑작스럽지만 격렬한 형태의 자살일 것이다. 이 사건은 “태양이 너무 뜨거워서 세상을 태울 듯이” 작열하는 뜨거운 초원에서 안토니아가 밭을 탈곡하던 중에, 한 떠돌이 노동자가 뜬금없이 나타나서 밀알의 껍질을 벗기는 “탈곡기 안으로 머리를 곤두박질치며 뛰어들어” 끔찍한 죽음을 스스로 맞이한다는 일화이다(113-15).²⁾ 남자들도 힘들어하는 탈곡이라는 역센 일을 별 개의치 않고 자랑스럽게 하던 안토니아에게 이 낯선 부랑자가 갑자기 다가와서 “이 지역의 연못들은 너무 얕아져서 사람이 빠져 죽을 수 없게 되었네”라고 말하며, 시원한 맥주 한 잔을 얻어 마실 수 있겠냐고 그녀에게 묻는다(114). 그의 이상한 불평에 당황했지만, 안토니아는 그 누구도 물에 빠져 죽길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여기서는 맥주를 구할 수 없다고 말하자, 이에 실망한 그는 탈곡기 위에서 일하던 올 아이버슨(Ole Iverson)에게 “떠돌이 생활에 지쳐서 더 이상 갈 수 없다”라고 말하며 나도 같은 노동자이니 기계 위에서 일하게 해달라고 간청한다(114). 더운 여름날 땀과 “왕겨”(chaff)에 뒤범벅이 된 채 힘

들게 일하던 아이버슨은 안토니아의 염려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내려와 그 부랑자와 일을 교대한다. 그러자 이 떠돌이 노동자는 잠시나마 능숙하게 일하다가 곧 탈곡기 안으로 뛰어들어 처참한 죽음을 맞이한다.

이 끔찍한 일화는 블랙 호크(Black Hawk)라는 마을에서 가정부로 일하던 안토니아가 하링 부인(Mrs. Harling)과 그녀의 딸인 프랜시스(Francis) 그리고 소설의 화자인 짐 버든(Jim Burden)에게 들려주면서 『나의 안토니아』에서 등장한다. 그런데 소설의 배경인 평화로운 시골에서 느닷없이 벌어진 떠돌이 노동자의 절망적인 죽음이라는 이 생경한 일화의 의미에 대해 안토니아와 짐을 비롯해 탈곡기에 끼인 시체를 꺼내려고 고생한 농부들 그 누구도 잘 알지도 못하고 깊이 생각하지도 않는다. 또한 작품 안에서 이 사건에 대해 이후에 별다른 언급이 없이 지나가는 것으로 보아, 작가인 캐더 또한 어느 무명 노동자의 자살이라는 이야기를 작품에서 스치듯이 등장하는 여러 에피소드 중 하나로 간주하는 듯하다.³⁾ 그런데 이 장면에서 프랜시스가 열썬 언급한 부랑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펜나이프와 함께 발견된 「오래된 참나무 양동이」(“The Old Oaken Bucket”)라는 시 한 편이 이 무명의 떠돌이 노동자의 면모를 망각의 어둠 속에서 어렵פות이 드러내 준다. 이 시는 사무엘 우드워스(Samuel Woodworth, 1784-1842)라는 미국 시인이 1817년에 쓴 작품으로, 시인이 태어난 매사추세츠(Massachusetts)주의 시츄에이트(Scituate)라는 마을에 있는 농가에서 보낸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소박한 전원생활에 대한 찬미와 향수를 그린 작품이다.⁴⁾ 이 시에서 시인은 어릴 적 뛰놀던 농장의 우물에서 이끼 낀 “오래된 참나무 양동이”로 길어 마시던 물이 인생에서 가장 달고 시원했던 물이라고 회상하며, 그 시절의 평화롭고 순수했던 순간들을 그리워한다. 단순하지만 순수한 행복의 기억을 바탕으로 암울한 현실과 대조되는 잃어버린 평화와 순수의 추억을 애달프게 회상하는 시이다.

이렇게 볼 때, 한마디로 이 「오래된 참나무 양동이」라는 시는 자살한 떠돌이 노동자가 미국의 중서부를 방랑하는 와중에도 품고 있었던 이상적인 삶의 모습, 즉 우드워스의 시가 추억하듯이, “과수원”과 “초원” 그리고 “야생 숲”과 “연못”에 둘러싸인 소박한 경작지가 딸린 농장에서 행복한 노동자의 삶을 살고 싶다는 떠돌이 노동자의

오랜 염원을 표상하는 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왜 이 이름 모를 무명 노동자의 희망이 격렬한 자살이라는 실패로 종결된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런 실패는 또 다른 노동자인 안토니아에게도 그리 낮은 운명은 아니었을 것이다. 철도 승무원인 래리 도너번(Larry Donovan)과의 첫사랑이 사기 결혼으로 인해 허무하게 끝나고, 미혼모가 된 안토니아는 콜로라도(Colorado) 덴버(Denver)에서 돌아와 임신한 채로 긴 남성용 오버코트와 장화를 신고 넓은 챙이 있는 “남자의 펠트 모자”를 쓰고 뜨거운 땀별에 아래서 생존을 위한 노동을 해야만 했고, 추운 겨울날에 외로이 첫 아이를 출산해야 했다(203-04). 이런 고난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안토니아와 짧게 재회하면서, 화자인 짐이 그녀에게서 어렵듯이 감지한 “깊이 내재한 건강과 열정”에서 나오는 “새로운 종류의 힘”이 없었다면 아마도 그녀 또한 절망적인 삶에서 헤어 나오기 쉽지 않았을지도 모른다(298). 비록 『오, 개척자들!』(*O Pioneers!*, 1913)의 알렉산드라(Alexandra)처럼 자본주의적인 의미에서의 물질적 성공은 이루지 못하지만, 다행히도 안토니아는 같은 보헤미아 이민자 출신의 쿠작(Cuzak)과 결혼하여 소박한 농장을 개척하고 아이들과 함께 나름 행복하고 부족하지 않은 건강한 삶을 살아간다.

그런데 『나의 안토니아』의 안토니아가 그녀의 인생을 스쳐 지나간 절망의 늪으로 빠지지 않고 건강한 노동자로 살아간 반면, 한여름 피약별 초원에서 우연히 만났던 그 떠돌이 노동자가 탈곡기에 몸을 던지며 인생을 마감한 이유를 단지 짐이 추억이라는 기억의 붓질로 추상적으로 제시한 ‘깊이 내재한 건강과 열정’이라고 불리는 내면의 힘이 부족해서라고 볼 수만은 없다. 그보다는 당시 노동하는 인간에 대한 미국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역할과 인식에서 나오는 경제적 모순과 사회적 문제점들이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원인에 대한 실마리는 그 떠돌이 노동자가 주머니에 가지고 다닌 「오래된 참나무 양동이」라는 시의 배경인 매사추세츠주 시츄에이트에서 북쪽에 있는 보스턴(Boston) 근교의 콩코드(Concord)라는 마을에 살고 있었던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Henry David Thoreau)의 『월든: 숲속의 생활』(*Walden, or Life in the Wood*)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비록 안토니아와 동시대 사람은 아니지만, 보헤미아에서 살던 그녀가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하여 네브래스카에 정착하기 약

반세기 전에, 소로우는 동부 매사추세츠주의 콩코드에 거주하면서, 월든(Walden)이라는 마을 근처 호숫가에 손수 오두막을 짓고, 당대를 선도하는 지식인이지만 몸소 자연 속에서 노동자로 사는 삶을 실천하는 2년여 동안에 걸친 실험적인 생활을 하였다. 이 기간에 그는 콩코드시를 포함하는 근대사회에서 노동의 역할과 가치 그리고 노동자의 삶에 대해서 아름다운 월든 호숫가의 자연풍경을 배경으로 누구보다도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따라서 소로우가 삶과 노동의 가치 그리고 자연과 노동의 상호관계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하고 사념한 결과물인 『월든』에서, 필자는 안토니아의 삶과 노동의 의미 그리고 그녀가 세속적인 개념에서의 사회적 실패와 인생의 고난을 극복하고 마침내 개척한 ‘홈스테드’(homestead)라고 불리는 가족 농장의 생태 친화적인 면모를 좀 더 잘 파악하고 가늠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서 낭만주의자인 집의 지식인 특유의 추상적 관점과 추억이라는 기억의 붕괴로 포장되고 미화된 안토니아의 삶이 아닌 자살한 떠돌이 노동자가 주머니에 품고 있었던 「오래된 참나무 양동이」라는 우드워스 시의 무대가 되는 매사추세츠주에서 철학적 이론과 사회적 비판 그리고 실천적 행동들이 함께 어우러진 소로우의 삶에 그 실마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안토니아가 우연히 목격한, 떠돌이 노동자의 자살이 암시하는 사회적 모순과 더불어, 그녀의 삶과 노동에 대한 생산적인 평가와 감상은 소로우가 월든 호숫가에서 찾otta 한 근본적인 노동의 의미와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삶의 진리의 관점에서 좀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그런데 네브래스카 삼부작이라고 불리는 캐더의 초기 소설 중에 진정한 노동자가 작품의 주인공인 경우는 『나의 안토니아』 외에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오, 개척자들!』의 알렉산드라는 직접 땅 위에서 일하는 노동자라기보다는 초원의 대지에서 영감을 받은 투자를 바탕으로 성공한 농장 경영자로서의 면모가 강하며, 『종달새의 노래』(*The Song of the Lark*, 1915)에서의 중심인물은 예술적 영감의 소유자로 오페라 가수로서 성공한 테아 크론보그(Thea Kronborg)이다. 삼부작에 속하지는 않지만 네브래스카 스위트 워터(Sweet Water)를 배경으로 한 『길 잃은 여인』(*A Lost Lady*, 1923)의 여주인공 메리언 포레스터(Marian Forrester)는 당시 철도 산업을 기반으로

중서부 사회의 정치와 경제적 패권을 좌지우지하는 소위 ‘프레리 귀족’에 속하는 부유한 신사의 아내로서 지배계급의 우아한 문화를 상징하는 여인이다(Wienen 237). 이렇게 볼 때 개발과 진보의 근대자본주의의 기치 아래 자연을 도전과 착취의 대상으로만 보는 남성 개척자의 신화에 대항하여, 자연과 인간의 유기적이고 친화적인 공존을 추구하는 여성 개척자의 실상을 그린다고 알려진 캐더의 생태여성주의 소설에서 안토니아가 유일한 노동자 주인공이라는 사실은 언뜻 이해하기 어렵다. 인간은 무엇보다 노동이라는 근본적으로 자연과 상호 호혜적인 활동을 통해서 자연과 교감을 시작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일하는 것, 즉 노동의 성격과 본질에 대해 어떻게 파악하느냐가 인간과 자연환경의 관계, 더 나아가 삶의 의미에 대해 인식하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나의 안토니아』의 서사는 노동의 주체인 안토니아가 아니라 일종의 심미적 관찰자인 짐의 기억에 전적으로 의존해서 펼쳐진다. 중서부 ‘프레리 사회’의 중산층에서 태어나 하버드 대학에서 교육을 마치고, 캐더가 “거대한 서부 철도”라고 작품의 서문에서 언급한(1), 당시 동부와 서부에 거대한 연결망을 구축하는 산업자본을 변호하는 짐 버든이 과연 안토니아가 평생토록 행하는 노동의 도구적 성격과 존재적 본질에 대해 깊이 알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안토니아는 비록 소설의 주인공이지만 작품 속에서 묘사된 그녀의 인생 대부분은 화자인 짐 버든의 기억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이 작품의 네 번째 장에서 스티븐스 부인(Mrs. Stevens)에게서 안토니아의 결혼생활에 대해서 전해 듣는 것을 제외하면, 여성 개척자이자 평생토록 노동자로 일한 안토니아의 삶은 백인 주류계급 태생 남자의 시선을 통해서 그려지고 있다. 이 소설의 작가인 캐더 또한 짐과 마찬가지로 미국 사회의 주류를 형성하는 지식인 계층의 전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기에 안토니아의 인생, 특히 노동자로서의 애환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많은 평론가가 지적했듯이 캐더는 유년기를 제외하고는 주로 피츠버그와 뉴욕에서 잡지 편집인이나 기자, 비평가 그리고 교육자와 소설가의 삶을 살았다. 이는 중서부 초원에서 생존을 위해 일해야만 하는 노동자의 삶과는 짐 버든 만큼이나 거리가 있다. 비록 정기적으로 네브래스카를 방

문했지만, 대도시의 지식인으로서의 캐더의 시골 평원에 대한 시선은 개인적인 문화적 충돌을 연상시킨다고 할 만큼 복잡미묘하다고 할 수 있다. 레지널드 딕(Reginald Dyck)은 캐더 자신은 “산업화와 도시화” 시대에 대학 교육받고 전문직에 종사하면서 경제적 독립을 추구하는 소위 “신여성”에 가까운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런 이유로 작가로서 그녀는 안토니아보다는 오히려 『오, 개척자들!』의 “신여성 개척자”인 알렉산드라와 더 유사하다고 말한다(161-62). 왜냐하면 비록 알렉산드라는 캐더의 초기 소설 중에 안토니아와 더불어 유일하게 대평원의 농장을 개척하는 여성이지만, “농부의 아내”라기보다는 “농장 경영자”에 가깝기 때문이다(Dyck 162).⁵⁾

앞서 언급한 대로, 네브래스카 대초원에서 펼쳐지는 주요 등장인물들의 삶의 궤적들을 다루는 캐더의 초기 작품세계에서 진정한 노동자는 안토니아가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캐더 또한 노동자로서의 안토니아를 이해하는 것은 캐더의 문학적 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소설의 화자인 짐 만큼이나 어려운 일이라고 해도 그리 과언은 아닐 것이다. 기실 한 인간으로서 짐은 캐더와 삶의 “팩릭”(thread)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다(O'brienn 469-71). 소설 속의 짐과 마찬가지로 캐더는 버지니아(Virginia)에서 네브래스카 초원으로 이주한 후에 작은 마을에서 성장하였으며, 이웃집에서 일하던 보헤미안 가정부인 애니 파벨카(Annie Pavelka)와 친밀해졌고, 파벨카 아버지의 자살은 그녀에게 『나의 안토니아』를 집필할 계기를 주었다고 어느 친구에게 고백하기도 했다.⁶⁾ 그리고 링컨에서 대학을 다닌 후에 뉴욕 등 동부지역에서 경력을 쌓아나갔다는 점 등이 짐과 캐더가 공유하는 삶의 궤적이다. 게다가 비록 캐더와는 달리 짐은 결혼했지만, 그의 결혼생활은 작품의 서두에서 암시되듯이 그다지 행복하지 않았고 자식도 없는 뭔가 결핍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결핍이 안토니아를 “초기 인류의 창시자 같은 삶의 풍부한 원천”이라고 과도하게 낭만화하는 혐의의 원천이 되었으며, 이런 면에서 캐더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필자는 생각한다(227). 오히려 『나의 안토니아』의 안토니아와 시대적으로나 지리적으로 조금 거리가 있지만, 동부 매사추세츠주의 콩코드라는 마을에 거주하면서, 엘리트 지식인이지만 노동자로서 소박한 삶을 실천한 소로우의 담론이 노동자로서 안토니아의 삶을 더욱 잘 이해하게 해주

는 실마리를 줄 수 있다고 본다. 소로우가 콩코드 월든 호숫가에 머물면서, 근본적인 노동의 가치와 자연에 대해 천착한 『월든』은 안토니아의 삶과 노동의 의미를 가늠하는 지혜를 줄 수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따라서 그녀의 삶과 노동에 대한 생산적인 평가와 감상은 소로우가 월든 호숫가에서 찾고자 한 “인생의 본질적인 사실”과 “삶의 모든 정수”의 관점에서 좀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을 것이다(Thoreau 70-71).⁷⁾ 더 붙여 만약에 소로우가 안토니아의 삶, 특히 그녀 인생의 후반부에 가족과 함께 개척하는 대초원의 자연과 어우러지는 농장을 보았다면 소설의 화자인 짐이나 심지어 작가인 캐더 보다 훨씬 실제적으로 그녀의 삶에 공감할 수 있을 것이라 해도 과장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캐더의 『나의 안토니아』에서 안토니아가 중서부의 초원에서 자신의 가족 농장을 개척하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소외된 노동이 아닌 자연 일부로서의 인간 본성에 충실한 본질적인 노동을 통해서 자연과 조화롭고 역동적으로 교감하는 양상의 의미를 소로우가 『월든』에서 피력한 자연과 노동 그리고 인간의 본질적인 삶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다시 고찰해 볼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다음 장에서는 인간을 위한 노동이 아닌 노동이 인간을 지배하는 근대 노동의 비극적인 역설과 굴레에 대한 소로우의 비판적인 논의를 통해 안토니아를 비롯한 미국 중서부 대초원을 떠돌아다니는 임금 노동자들의 삶과 노동의 의미에 대해 논하겠다. 그런 후에 자연 속에서 인간의 삶을 역동적으로 매개하는 본질적인 노동의 관점에서, 소로우가 월든 호숫가에 오두막을 짓고 실험적인 삶을 살아가는 양상과 안토니아가 네브래스카 초원 위에서 가족농장을 개척하는 삶의 양상을 차이를 포함하는 비판적인 유사성의 관점에서 논하도록 하겠다.

II. 근대 노동의 역설과 굴레

소로우가 콩코드 근처의 월든 이라고 부르는 작은 호숫가 숲속에서 집 한 채를 짓고

들어가서 생활하게 되는 시발점이자 직접적인 이유 중 하나는 단순히 호수와 그 주변을 둘러싼 자연풍경이 좋아서, 문명의 위선과 이기심을 비판하고 자연과 합일하는 소위 생태주의적인 삶을 의식적으로 영위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당시 콩코드 주민들의 생활이, 농부나 철도건설 노동자 등 하층민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의 생활이, 인간 문명의 과학적인 발전과 상업적인 풍족이 무색하리만큼 비참해서이기 때문이다. 1840년대에 건설된 ‘휘츠버그 철도’(The Fitchburg Rail Line)가 대표하듯이 매사추세츠 콩코드 지역을 관통하는 과학 기술문명의 첨단화와 산업자본주의 시장의 확장과 상관없이, 아니면 오히려 그 발전양상과 반비례하는 듯이 콩코드 주민들의 삶은 나날이 비참해지는 참담한 역설적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문제에 소로우는 직면했다. 소로우가 목격한, 땅의 주인이 아닌 땅의 노예가 되고, 노동의 주인이 아닌 노동의 노예가 되어, “천 가지의 희한한 방법으로 고행을 치르고 있는” 월든 호숫가 주변 마을에 사는 주민들 모습은 콩코드를 넘어 매사추세츠 전역, 아니 당시 미국의 전역에 걸쳐 있는 “사무실”이나 “상점” 그리고 “논밭”에서 엿볼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W 45). 이렇게 볼 때, 안토니아가 목격한 떠돌이 노동자의 맥락 없이 벌어진 잔인한 죽음의 저변에는 이런 미국 사회의 역설적 현상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소로우는 이런 자본주의 문명의 발전에 반비례하는 현대인들의 비참한 삶의 양상이라는 역설을 극복하는 대안적이면서 본질적인 삶의 가능성을 월든 호숫가에서의 생활에서 찾으려 한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소로우는 소위 “자발적 가난”이라고 부르는 “유리한 고지”에서 “인간존재의 근본적인 법칙”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월든 호숫가의 숲속에서 손수 오두막집을 짓고 2년여에 걸친 실험적 삶을 시도했다고 할 수 있다(W 10-12). 이런 소로우 자신의 개인적인 생활의 경험으로부터 나오는 직관적이면서 미래지향적인 통찰이 『월든』을 구성하는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소로우가 월든 호숫가 숲속에서 살면서 몸소 구현하려는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법칙”에 충실한 삶의 진리, 다시 말해 그가 “삶의 모든 정수”라고 일컫는 불필요한 걸치레를 뺀 긴밀한 삶의 진실들을 인식하고 실천하기 위한 기반은, 먹고 살기 위해 인간이 삶의 대부분을 바치는 행위인 노동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월든』의 제 1장,

“경제”의 서두에서 소로우는 근대사회가 조장하는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행하는 불필요하고 거친 과도한 노동은 노동자 자신의 인간적 존엄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타인들과의 인간적인 교류를 할 수 없어 시장에서 자신의 노동 가치가 떨어지게 만들며, 결국에는 노동자는 끊임없이 노동만을 해야 하는 단순한 기계가 되는 악순환에 빠진다고 말한다(*W* 6). 좀 오래되면 바로 사라지는, 싱싱한 과일의 표면에서만 볼 수 있는 “과분”(the bloom on fruits)처럼 인간이란 섬세한 존재이지만, 과도한 노동은 이런 섬세함을 유지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여유를 노동자의 삶에서 빼앗아 가고, 결국은 노동자 스스로가 “그 자신의 노예 감독”으로 만들며 “조용한 절망”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게 될 뿐이라고 소로우는 말한다(*W* 6-7). 이렇게 볼 때 안토니아가 초원의 대지 위에서 일하다가 목격한, 「오래된 참나무 양동이」라는 시를 가슴에 품은 떠돌이 노동자의 좌절과 참담한 죽음을 촉발한 원인 중 하나는 이런 맹목적이고 도구적인 노동의 과부하가 불러일으킨 악순환의 결과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소로우는 비난한 삶을 망치고 인간관계를 단절시키며 노동자 자신을 도구로 전락시키는 과도한 노동은 마르크스(K. Marx)가 설파한 소위 근대적인 ‘노동의 소외’와 궤를 같이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간단히 말해서, 노동이 노동자에게서 분리되어 돈과 상품의 형태로 노동자를 지배하고, 노동의 대상인 자연으로부터 노동자를 단절시켜, 자연을 공존의 대상이 아닌 투쟁과 소유의 타자로 인식하게 만든다. 이런 노동 소외현상은 상공업지역을 넘어서 전원의 농경지에서도 만연한 현상이기 때문에, 소로우는 콩코드 주민들을 농장과 집 그리고 가축과 농기구에 종속된 “땅의 노예”라고 부르며, 차라리 초원에서 태어나 늑대의 젖을 먹고 자랐으면 더 자유로웠을 거라고 역설한다(*W* 5). 브라이언 워커(B. Walker)가 지적하듯이, 기실 『월든』은 현실 문명에 환멸을 느껴 자연의 생태계로 도피하는 낭만주의적 개인주의를 옹호하는 작품이 아니라, “시장 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노동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생계를 꾸리면서 동시에 자유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관한 인생 상담이자 충고라고 할 수 있다(845-46). 다시 말해, 생계를 위해 일하는 노동자로서의 인간과 주체적인 자유를 마땅히 누려야만 하는 개인으로서의 인간 간의 긴장 관계를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하는가에 대한 충고를

월든 호숫가에서 소로우가 체험한 노동자로 사는 삶을 바탕으로 조언하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

소로우는 비록 당대 미국 사회를 이끄는 명문대 출신의 지식인이자 사상가이지만, 그 누구보다도 노동의 성격과 모순 그리고 노동자의 애환을 잘 이해하였고, 본인 자신도 여러 분야의 노동을 경험한 노동자이자 일꾼이라고 할 수 있다. 『월든』에서 그는 “나는 5년 이상을 이처럼 오직 내 손으로 한 노동만으로 생계를 유지했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은 학교경영이나 사업은 적성이 아니라고 고백한다(W 54). 생활인으로서의 소로우는 기본적으로 “날품팔이 노동자”라고 말할 수 있다. 그는 “집 페인트공”, “석공”, “토지측량사”, “정원사”, 그리고 가업이었던 “연필 제조공” 등 여러 분야의 노동을 전전하며 생계를 유지하면서, 저술가와 사상가로서의 활동을 이어 나갈 수 있는 시간과 돈을 벌었다(Walker 846). 이런 경험이 있었기에 삶과 인간관계 그리고 인간성을 황폐화하는 노동의 소외와 과도함을 극복할 수 있는 이상적인 노동과 자연과의 관계를 소로우는 월든 호숫가에서 찾으려 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노동을 통해서 자연 속에서 인간 본성을 발휘하면서, 그 노동의 결과가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는 그런 노동과 자연이 공감과 교류를 이루는 지향점을 찾으려 하였고, 그것이 어떤 면에서 소로우가 말한 “인생의 본질적인 사실”들을 마주하면서 “삶의 모든 정수”를 경험하는 언뜻 단순하게 보이지만 깊이 있는 삶이라고 할 것이다.

이런 단순하지만, 근본적이고 깊이 있는 삶을 실천하기 위해 1845년 3월 말경 소로우는 월든 호숫가에서 2년여 동안 거주하기 위한 오두막집을 직접 만들기를 결정하고, 도끼 한 자루를 빌려 예전에 미리 봐둔 호숫가 숲속의 집터 주위의 곧게 뻗은 “백송 나무”를 “재목”으로 쓰기 위해 베어 넘겼다. 그런데 미국 문학사를 통틀어서 가장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 이 오두막은 월든 숲속에서 소로우가 직접 구한 천연재료로만 온전히 만든 것은 아니다. 사실은 어느 궁핍한 아일랜드 출신의 철도노동자가 이사하면서 소로우에게 “판잣집”(shanty)을 매매했는데, 그는 이 집에서 사용된 “판자들”(boards)을 해체하여 월든 호숫가에 짓고 있던 통나무로 된 오두막의 뼈대를 덮어 줄 용도로 사용했다(W 33-34). “휘츠버그 철도”에서 일하던 제임스 콜린스(James

Collins)라는 가난에 찌든 노동자가 소유한 집의 내부는, 흙먼지에 뒤덮인 아주 어둡고 축축했고 여기저기에 널빤지가 널브러져 있어 잠시라도 머무르면 병에 걸릴 것만 같은 곳이었다. 이 햇볕이 들지 않는 낡은 판잣집에서 콜린스라는 철도노동자는 아내와 아이 그리고 고양이와 같이 생활하고 있었는데, 이른 새벽 6시에 소로우에게 4달러 25센트를 받고 집을 넘겨주었고, 그들의 살림살이는 너무나 단출해서 큰 보따리 하나만 가지고 무작정 길을 나설 수 있었으며, 같이 살던 고양이는 숲속으로 달아나서 “들 고양이”가 되었지만, 결국은 사냥꾼이 설치한 올가미에 걸려서 “죽은 고양이”가 되었다(W 34).⁸⁾ 더 슬픈 것은 이 초라한 판잣집도 온전히 이 노동자의 것이 아니라 “대지 임대료와 연료비” 등의 저당이 잡혀있어서, 콜린스 가족들은 도망치듯 떠나야 했다는 사실이다(W 34). 이렇게 볼 때 소로우의 오두막은 비록 아름다운 월든 호숫가의 한적한 빈터에 지어졌지만, 어느 아일랜드 출신의 떠돌이 노동자 가족의 빈곤과 피로에 찌든 정처 없는 삶의 아픔과 슬픔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오두막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월든 숲속의 이 오두막에서 소로우는 단순하면서도 본질적인 농사일과 육체노동을 하면서, 콜린스와 같은 당대 노동자들이 겪는 문명의 혜택에서 소외되는 비참한 삶의 원인과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한다는 의미에서, 이 오두막에 사용된 판자들 속에 깃든 어느 노동자 가족의 슬픔과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한다.

서둘러서 판잣집을 팔고 떠난 콜린스처럼 곤궁한 삶을 사는 노동자들을 소로우는 매사추세츠주 전역에서 일상적으로 목격할 수 있다고 말한다. 한 예로, 월든 호수에서 그리 멀리 않는 곳에서 건설되고 있었던 당시 서구 기술문명의 총아인 휘츠버그 철도 노선의 주변에서도 이들 노동자 계층의 참상을 엿볼 수 있다.

이런 상황[쇠락한 빈민층]을 파악하기 위해 멀리 찾아볼 필요 없이 문명 발전의 최첨단을 상징하는 철도의 연변에 늘어선 판잣집들을 보면 된다. 나는 매일 산책할 때마다 가족우리 같은 데서 사는 사람들을 목격한다. 그 사람들은 집에 햇볕이 들게 하려고 겨우내 문을 열어놓고 지내며, 장작더미는 보이지도 않고, 있을 거라고 짐작되지도 않는다. 그리고 아이와 어른 할 것 없이 추위와 가난으로 몸이 오랫동안 움츠러들어서 영원히 쪼그라들었고, 그들의 사지와 인지능력의 발달이 지체된 상태이다. (W 27)

비록 콜린스와 같은 수많은 노동자가 미국 문명의 발전에 필수 불가결한 노동력을 제공하지만, 그들의 삶은 화려한 서구 문명의 도약과 반비례하여 비참할 정도의 가난으로 점철되어 있다. 소로우는 자신이 속한 세대의 문명이 이런 수많은 노동자의 노동력에 의존하여 두드러진 성취와 진보를 이루어 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노동자 당사자들은 “비문명인들”보다도 못한 처지에서 비속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한탄하며, 이런 노동자들의 실태는 미국을 넘어서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리는 영국이나 아일랜드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W 27). 이런 노동계급의 상황은 문명과 비참한 가난이 공존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사례로 볼 수 있으며, 콜린스와 같은 철도노동자가 기본적으로 이동 수단인 철도에 종속되어 과도한 노동에 시달리면서 삶을 겨우 유지하는 모습은, 마치 철도라는 인간의 편리를 위해 문명이 발명한 운송 수단에 인간의 삶이 종속되는 역설이라고 소로우는 주장한다. 이런 의미에서 소로우는, “인간은 이제 자기가 쓰는 도구의 도구가 되었다”라고 자조적으로 말하며, 원시시대의 단순한 일시적 체류의 삶, 즉 자연에 잠시 머물면서 산과 계곡을 여행하는 원초적 삶이 오히려 현대인의 삶보다 더 나은 삶일 수도 있다고 말한다(W 29).

III. 대초원의 노동

소로우가 『월든』에서 애처롭게 바라본 미국 사회의 화려한 근대 문명의 그늘 속에서 살며 “침묵하는 가난한 사람들”에 속하는 노동자들은 캐더의 『나의 안토니아』에서도 제법 등장한다. 앞서 논했던 밀 탈곡기에 뛰어들어 자살한 떠돌이 노동자 외에도, 대표적으로 짐의 할아버지 농장에서 일하던 ‘일꾼’들인 오토 퓨크스(Otto Fuchs)와 제이크 마폴(Jake Marpole)이 있다. 제이크는 원래 버지니아주에 있는 짐의 부친이 소유한 농장에서 일하던 일꾼이었는데, 농장의 소유주가 사망한 까닭에 짐을 따라서 네브래스카까지 같이 이주한 단순하지만 건장한 노동자이다. 이 오토와 제이크라는

두 노동자는 소로우가 생활비를 벌기 위해 한동안 그랬던 것처럼 전형적인 낱품팔이 노동자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오토는 소위 ‘만능일꾼’이라고 일컬을 수 있을 정도로, 카우보이나 역마차 운전사, 바텐더, 그리고 광부 등 수 많은 직업을 전전하면서 광활한 미국 서부를 방랑한 떠돌이 노동자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무더운 한여름 대 초원에서 생뚱맞게 등장해 안토니아에게 가뭄으로 연못의 수위가 낮아 물에 빠져 죽기 힘들다고 말한 후, 그녀가 일하던 탈곡기에 뛰어들어 자살한 떠돌이 노동자와 본질적으로 같은 계층의 일꾼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오토와 제이크는 추운 겨울과 무더운 여름 상관없이 “언제든지 연장 근무를 하고 비상시를 대비할 준비”가 되어있는 사람들이다(45).

오토와 제이크는 월든 근처의 휘츠버그 철도에서 일했던 제임스 콜린스와 마찬가지로 열심히 일하며 살아왔지만, 딱히 내세울 만한 재산이나 사회적 지위가 없는 사람들이었다. 짐이 말한 대로 “그들은 하루에 일 달러나 이 달러 정도 벌기 위해서 뭐든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어쨌든 결코 잘 살지는 못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다”(45). 또한 오토와 제이크는 세상에 살아가기 위해서 기댈만한 것은, 단지 “억센 두 주먹”뿐인 가족도 없이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닳고 닳은 노동자”이다(55). 소로우가 주장한 대로 당시 미국 사회에서의 노동은 노동의 주체인 노동자들에게 이로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노동의 도구가 되게 만들었으며, 이들이 곤궁한 삶을 연명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자본과 시장이 요구하는 과도한 노동에 의존하게 만드는 비극적 역설의 희생자가 된다. 비록 짐의 농장에서는 오토와 제이크를 가족처럼 대해 주지만, 할아버지가 농장을 팔고 도시로 이주하고 나서 그들은 떠날 수밖에 없었다. 직장도 사라진 이 두 노동자는 서부로 가는 기차를 타고 홀연히 사라졌고, 어느 광산에서 일한다는 편지가 이 둘에게서 온 마지막 소식이었다. 노동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임금 노동자로서 그들은 노동을 구매할 자본을 찾아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것이 필연이라고 할 수 있다.

안토니아 역시 부친인 쉬메르다씨가 자살한 후에 어려워진 가족 농장의 일을 돕기 위해 15살이 채 안 되었지만, 아버지가 남긴 장화를 신고 털모자를 쓰고 마치 남자 노

동자처럼 힘든 노동을 해야만 했다. 그녀의 하얀 팔과 목살은 햇볕에 그을려 뱀사람처럼 흑갈색으로 변했으며, 그녀의 목덜미는 유럽에서 볼 수 있었던 소작농의 아내처럼 “짐 끄는 말”의 목덜미처럼 억센 근육 뭉치가 생겨났다(79). 집에 의하면, 그녀는 식사할 때도 남자처럼 소리 내 먹으며 하품을 연신 크게 하고 팔을 크게 휘저으며 먹는 등 전형적인 억센 노동자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한번은 짐에게 그녀의 갈색 팔뚝에 생긴 근육을 자랑하면서, “오! 나는 집안에서보다는 야외에서 일하는 것을 아주 좋아해”라고 하며 어린 나이에 과도한 육체노동을 하는 것에 대해 별 거부감이 없는 듯이 보인다. 그렇지만 짐의 할머니가 “무리한 농사일은 그 소녀를 망칠 것이야. 그녀는 그녀가 가진 모든 단정한 몸가짐을 잃어버리고 거칠어질 거야”라고 안타까워하듯이, 어린 안토니아가 이런 종류의 과도한 노동을 해야만 한다는 사실은 상당히 불행한 일이며, 이에 대해 그녀 자신도 잘 알고 있기에 짐과 학교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후, 학교에 갈 수 없는 자신의 처지에 눈물을 보인다(80). 비록 안토니아가 블랙 호크에 있는 하링 집안의 “고용된 소녀”라고 불리는 가정부로 일하게 되면서 과도한 육체노동에 벗어나서 집안일을 돕게 되었지만, 이런 고용된 노동은 안토니아에게 삶의 풍부한 가능성을 제한하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소로우가 월든 호숫가에 소박한 오두막을 짓고 살려고 결심한 이유 중 하나는 문명 사회일수록 주거환경의 역설, 즉 주택 소유의 역설이 수많은 노동자가 자신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소외되고 과도한 노동에 시달리게 만드는 원인이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자신이 거주하던 판잣집을 소로우에게 팔면서, 간접적으로나마 그 오두막을 짓는 데 도움을 주었던 콜린스도 철도회사에서 요구하는 노동을 열심히 제공했지만, 그 초라한 판잣집을 저당 없이 온전히 소유할 수는 없었으며, 결국 집을 팔아넘기고 다시 일자리를 알아보려 정처 없이 길을 떠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빛과 파산의 악순환에 벗어날 수 없었다. 소로우가 한탄했듯이, “파산과 지불거절은 대부분 문명사회가 뛰어올라 공중제비를 넘는 발판이고” 이런 파산과 지불거절의 원인은 소로우에 의하면 저당 잡힌 집과 농장이라고 할 수 있다(W 26). 소로우는 “미개국”에서도 평범한 주민들이 소박하지만 안락한 “은신처”를 충분히 소유할 수 있는데, 미국을 비롯한 근

대국가일수록 집을 소유한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으며, 문명의 최첨단을 달리는 대도시 지역일수록 전체 인구에 비해 아주 소수에 지나지 않는 사람들이 살 집을 소유하고 있다는 역설적인 상황에 대해 비판한다(W 25). 야만인들이 집을 소유할 수 있는 이유는 집값이 감당할 만하기 때문인데, 문명인들의 대부분은 집을 소유할 형편이 안 돼서 집세를 내며 살거나 저당 잡힌 집을 장만해야 하며, 월든 호수 근처의 집값이 평균 800달러인데, 이 정도 금액을 모으려면 노동자가 부양가족이 없더라도 15년이 넘는 기간이 걸린다고 그는 말한다. 따라서 월든 호수 근처 콩코드에 사는 부지런한 노동자가 집을 온전히 소유하기 위해서는 “인생의 절반 이상”을 희생해야 한다고 소로우는 한탄한다(W 26).

콜린스와 같은 철도노동자 외에도 농부도 별반 다를 바가 없다. 소로우는 “농부가 집을 마련하면 집 때문에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가난해지며, 오히려 집이 그를 소유하게 된다”라고 문명사회에서 집 소유의 비극적인 역설에서 농부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말한다(W 27). 또한 콩코드의 농부들은 농장을 물려받을수록 가난해진다고 그는 말한다. 왜냐하면 이들 대부분은 대출금을 떠안고 물려받았거나 빚을 내 사들였기 때문에, 진정한 농장주가 되기 위해서는 최대 40년 이상을 힘든 노동에 시달려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태반이 빚을 다 갚지 못해서, 콩코드에서 부채가 없는 농장을 소유한 사람은 채 12명도 안 되고, 농장에서 일해서 빚을 다 갚은 사람은 더욱 드물다고 소로우는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한다. 그렇다면 『나의 안토니아』에서 안토니아가 역경을 헤쳐 나가며 개척한 그녀의 홈스테드 농장은 어떠한가라는 의문일 수 있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안토니아가 어떻게 노동자를 가난하게 만드는 근대 노동의 역설적 굴레를 벗어났는가에 대해 소로우의 오두막과 그녀의 가족농장을 비교하면서 논하겠다.

IV. 소로우의 오두막과 안토니아의 가족 농장

『나의 안토니아』에서 안토니아는 같은 보헤미아 출신이지만 생활 능력은 별로 없는 쿠작과 가정을 꾸린 후에, 거의 혼자 힘으로 가족을 위한 농장을 개척하지만, 그녀를 바라보는 주위의 시선은 그리 호의적이지는 않았다. 고향 친구이지만 금광개발 사업으로 부를 축적한 타이니 소더벨(Tiny Soderbell)이나 의류업으로 성공한 레나 린가드(Lena Lingard)와 비교할 때, 안토니아의 가족농장의 사정은 “별로 넉넉지 않으며,” “그들은 가난했고 대가족”이라는 게 사람들의 일반적인 평판이다(211). 당시의 사회적 기준으로 보기에는 안토니아의 인생은 그리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평할 수 있다. 그렇지만 안토니아의 가족과 농장에 대한 부정적인 평판과 관련하여, 소로우의 자유롭고 독립적인 농부에 관한 견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소로우가 한탄한 콩코드에 있는 월든 호수 근처의 농장들과 그녀의 농장과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전자는 시장을 위한 농장이지만, 후자는 자립적이고 자기충족적인 농장이라는 점이다. 소로우는 농부가 자기 자신과 가족이 필요한 만큼의 농작물만 경작하되, 불필요한 “사치스럽고 비싼 것들”을 시장에서 사려 들지 않는다면, 농사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소나 말을 사기 위해 빚을 질 필요도 없고 과도한 노동에 시달리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한다(W 43-44).⁹⁾ 이런 이유로 소로우는 월든 호수의 오두막 주변에서 농사짓는 농부로서 자신은 콩코드의 어느 농부보다도 “독립적”이라고 자신 있게 주장한다(W 43).

캐더의 소설에서 묘사된 안토니아의 농장도 역시, 비록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농장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농장이 아닌, 안토니아와 그녀의 가족들을 위한 자족적인 농장이다. 집이 20여 년 만에 다시 안토니아와 재회한 후, 그녀의 가족농장을 구경하던 중에 농장의 지하실에 있는 “과일 동굴”이라고 불리는 가족들을 위한 식량 저장소를 구경하는 장면이 있다(217). 이 과일 동굴에는 오이와 수박 껍질, 채리와 딸기 그리고 야생사과 등 가족의 먹거리가 오래 보관될 수 있도록 나무통에 저장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녀가 짐에게 “우리는 우리가 생산한 밀을 밀가루로 만들기 위해서 직접 갈기 때문에 내다 팔 것이 그리 많이는 없어”라고 말한

다(217). 소로우가 논한 시장을 위한 게 아닌 자기충족적인 농장의 자유로움과 유사하게, 안토니아의 농장은 말 그대로 시장을 위한 것이 아닌 가족의 자립을 위한 자기충족적인 농장이다. 따라서 그녀의 가족농장은 과도한 빛을 내어 생산도구와 가축을 사들이고 관리할 필요도 없고, 과도한 노동을 통해 필요 이상으로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자연의 영역을 침범할 필요도 없어서, 자연 속에서 어우러지는 정원과도 같은 농장이라고 할 수 있다.

소로우가 시장과 자본을 위한 노동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립적인 삶의 바탕이 되는 오두막을 손수 짓는 기쁨은 안토니아가 집과 정원이 딸린 자신의 농장을 개척하는 기쁨과 상당히 유사하다. 소로우와 안토니아 모두 이미 기존에 만들어진, 시장에서 가치가 정해지는 상품과 같은 집이 아닌, 자신들이 직접 짓고 개척하는 소박한 집에 머무는 것은 근본적이고 자연스러운 즐거움을 동반한다. 이는 단순히 자립적인 삶의 기반을 갖는다는 의미를 넘어 철도노동자들과 같은 콩코드의 노동자들이 주저와 생활비 등 단순히 생존하기 위해 삶의 다른 풍부한 가능성을 희생시키면서 고되고 소외된 노동을 끊임없이 해야만 하는 숨겨진 비극을 방지할 수 있다. 따라서 소로우는 소박한 오두막을 월든 호숫가에 짓는 의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사람이 자기 집을 짓는 데는 새가 자신의 둥지를 짓는 것과 비슷한 적합성이 있다. 만약 사람들이 손수 집을 짓고 그들과 가족들을 위해 소박하고 정직한 방법으로 음식을 마련한다면, 마치 새들이 둥지를 짓는 동안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어느 사람이라도 시적인 재능이 발달할지 누가 알겠는가? 하지만 불행하게도 우리는 다른 새들이 지어놓은 둥지에 알을 낳는 찌르레기나 빠꾸기처럼 행동하며, 이들의 시끄러운 지저귀이나 귀에 거슬리는 소리는 나그네들에게 즐거움을 전혀 주지 못한다. 우리는 언제까지 집 짓는 즐거움을 목수에게만 맡기겠는가? 대다수 사람의 경험에서 건축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일까? 나는 여기 저기 많이 돌아다니지만 자기 집을 짓는 만큼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일을 하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우리는 공동체에 속해 있다. 재단사만이 온전한 인간의 9분의 1인 것은 아니며, 목사, 상인, 농부도 온전한 인간이 되지 못하는 건 마찬가지다. 이 노동의 분업은 어디서 끝날 것인가?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분

업은 어떤 목적을 위한 것인가? 물론 어떤 사람이 나를 대신해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나를 대신해 생각하는 것이,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을 배제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W 35-36)

현대인은 소로우처럼 누구나 자기 집을 지어서 살 수는 없다. 그러나 여기서 소로우가 자립적인 삶의 기반인 오두막집을 손수 만들면서 깨닫는 삶의 진실들을 우리가 외면하기에는 그 가치와 의미가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그가 강조했듯이, 문명인들은 주택을 소유하거나 주거하기 위해 상당한 빚을 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평생토록 과도한 노동에 시달리지만, 결국에는 판잣집을 소로우에게 팔고 떠나버린 철도노동자인 콜린스처럼 그들 대부분의 생활은 그리 나아지지 않는다. 따라서 자기충족적인 삶을 위한 근본적인 노동, 즉 소박한 집과 자족적인 농장을 개척하는 노동은 인간의 삶을 경제적 이득에 구속되게 하지 않고, 이를 초월하는 예술이나 또 다른 차원의 진정한 삶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근본적이고 가치 있는, 마치 새가 둥지를 만들면서 노래하듯이 영위하는 자연 친화적인 노동이다. 이런 맥락에서 고든 우즈(Gordon Woods)는 소로우가 강조한 것은 진정한 “노동의 중요성과 존엄성에 대한 고양된 인식”이지 노동 자체를 거부하고 월든 호수에서 그냥 유유자적하게 보내라는 취지가 아니라고 주장한다(277). 또한 위 인용문에서 소로우가 “우리는 공동체에 속해 있다”라고 강조하듯이, 그가 말하려는 바는 시장에서 교환과 노동의 분업을 온전히 배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노동이 시장에 종속되면서 노동의 분업이 극단화되고, 이에 따라서 인간이 자유로운 주체로서 자연 속에서 존재하는 데 필요한 근본적인 노동의 진정한 가치를 잃어버리는 현대인에 대한 경고라고 볼 수 있다.¹⁰⁾

안토니아의 농장은 그녀의 대가족을 위한 자족적인 농장으로 비록 생계가 넉넉하지는 않지만 마치 새들이 둥지를 지으면서 노래 부르고 소로우가 오두막을 지으면서 콧노래를 흥얼거리듯이 자유롭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여유가 넘치는 장소이다. “서부 철도”라는 대기업의 변호사로 일하던 짐 버든이 20여 년 만에 안토니아와 재회하기 위해 그녀의 농장에 들어섰을 때 보헤미안의 언어로 서로 대화하는 “맨발의 곱슬머리” 소년들이 그들의 어머니인 그녀에게 안내한다(213). 오리와 거위들이 꺽꺽거리

며 길을 가로지르고 하얀 고양이와 계단 밑 노란 호박 아래서 햇살을 즐기는 풍경을 지나서 짐이 안토니아를 다시 만났을 때, 처음에는 변한 모습에 약간 충격을 받았지만 곧 “세월의 풍파 속에서도 왜소해지지 않는” 그녀 특유의 생동감과 활력 속에서 “내면의 빛”과 “삶의 불꽃”이 아직도 꺼지지 않고 그녀에게 있음을 알아차리고 그는 안도한다(214-16). 금광업으로 부자가 된 안토니아의 친구인 타이니 소더벨은 자신의 세속적 성공에 대해 만족하지만 그렇게 열광적이지는 않았고 인생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린 듯이 보였다(194). 그러나 안토니아는 짐이 “수액”(sap)으로 표현하는 생명력과 생기를 넘겨지 못한 생활 속에서도 간직하고 있었다(216).

짐이 말한 안토니아의 생동감과 활력이 충만한 삶의 기반이 되는 것은 당연히 대초원의 생명력과 조화를 이루는 그녀의 집과 농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짐이 그녀의 농가를 처음 보면서 느끼는 감정은, 아마도 사람들이 소로우의 오두막집을 보고 느끼는 감상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소년들이 우리를 집 앞쪽으로 안내했는데, 그쪽은 아직 내가 못 본 곳이었다. 농가에서는 웬지 삶이 뒷문을 통해 드나드는 경우가 많다. 지붕은 너무 가파른 나머지 처마가 키 큰 접시꽃들이 이룬 숲보다 그리 위에 있지 않을 정도였다. 이 접시꽃들은 지금 갈색으로 변하고 씨앗이 맺힌 상태였다. 안토니아는 7월 내내 집이 접시꽃들에 파묻혀 있었다고 말했다. 나는 보헤미안 사람들이 항상 접시꽃을 심는다는 것을 기억해 냈다. 앞마당은 가시나무 아카시아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었고, 대문 옆에는 은빛 나방처럼 보이는 미모사 계열의 나무 두 그루가 자라고 있었다. 이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두 개의 긴 연못이 있는 가축우리과 여림이면 호밀밭이 되는 넓은 그루터기 들판이 펼쳐져 있었다. (218)

안토니아가 자신의 노동으로 개척한 농장은 자연과 인간이 생존을 위해 서로 대결하고 경쟁하는 장소가 아니라, 접시꽃들 속에 파묻힌 그녀의 집이 상징하듯이 자연 속에 농장이 있고 농장 안에 자연이 공존하는 그런 장소로서 소로우의 오두막집과 그리 큰 차이가 없다고 말할 수 있다. 한 예로 안토니아의 농장에서는 동물들이 생산을 위한 가축이 아니라 자연의 개별자로서 그녀의 가족들과 함께 사는 존재들이라고 할 수 있

다. 마치 소로우가 월든 호숫가에 살면서 새들과 꽃, 물수리와 산비둘기 그리고 철새들을 보면서 삶을 나누듯이, 안토니아의 농장에서는 오리와 거위뿐만 아니라 고양이와 청둥오리 등 야생 동물들도 사람들과 함께한다. 그녀는 짐에게 “내가 아이들을 낳은 이후부터 나는 그 어떤 것도 죽이는 것을 싫어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며, “늙은 거위의 목을 비틀어버릴 생각을 하면 기절할 것 같다”라며 동물을 가축으로서가 아닌 그 자체로서의 존재적 가치를 인식하는 면모를 보인다(220). 농장에서 이루어지는 노동은 근본적으로 자연의 일부인 인간이 또 다른 자연과 대화하는 신성한 일인데, 안토니아의 농장에서는 그녀가 직접 실천한 그런 노동의 신성함이 자신을 비롯하여 가족 그리고 동물과 식물 등의 여러 존재에 깃들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농업의 신성함과 관련하여 소로우는 월든 호숫가 오두막집에서 이루어지는 노동은 인간의 본성을 자연에 적극적으로 구현하는 작업이라고 말한다. 단순히 자연을 관찰하고 감상하는 목가적 전통의 심미적 관찰자와는 달리, 안토니아처럼 대지에서 일하는 인간은 노동을 통해서 대지와 그리고 주위의 자연과 교감하고 대화하는 존재이다. 대표적으로 많은 비평가가 예를 든 소로우가 “콩밭”을 경작하는 모습은 단순히 생산을 위한 자연을 대상화하여 개발하고 착취하는 게 아닌, “콩들은 나를 대지에 연결해주었고” 대지로부터 “힘”을 얻었다고 말할 정도로 자연과 교감하는 모습이다(W 121).

이른 아침, 나는 맨발로 일하며, 이슬을 머금은 부서지기 쉬운 모래를 마치 조각가처럼 발로 만지작거렸다. 그러나 나중에는 햇볕 때문에 발에 물집이 생겼다. . . . 잡초를 제거하고 콩 줄기 주변에 신선한 흙을 덮어주며, 내가 심은 이 작물을 복돋아 주고, 황갈색 흙이 자신의 여름 생각을 쏙과 피, 조 대신 콩잎과 꽃으로 표현하게 설득하여, 대지가 풀하는 대신 콩이라고 외치도록 하는 게 나의 일상이었다. 나는 말이나 소, 일꾼이나 아이들, 혹은 개량된 농기구의 도움을 거의 받지 않았기 때문에 훨씬 느리게 일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나는 콩들과 한층 더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 (W 122-23)

여기서 소로우에게 노동은 손과 발로 대지라는 자연 일부와 직접적으로 공감하면서

쭉과 피와 같은 “풀” 대신에 “콩”이 자라도록 설득하는 하나의 행위라고 볼 수 있다. 그는 대지를 근대 계몽주의적 정복과 개발의 사물화된 대상이 아닌, 마치 자연이라는 생명의 커다란 터전에서 공존하는 존재로서, 노동을 통해서 대화하고 공감하면서 서로 스며드는 관계로 이해한다. 도구적 자연관과 궤멸적인 이윤추구로 타자화된 자연 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의 노동이 황폐해지는 근대자본주의 체제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소로우의 노동은 비록 생산성은 많이 떨어지지만, 자연의 모든 구성원과 생태적 교감과 공존을 이룬다는 의미에서 안토니아의 자기충족적인 노동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한 예로 그녀가 나무 한 그루 한 그루씩 심어서 이룬 울창한 과수원 숲은 그녀에게는 사람과 같은 존재로서, 밤이면 밤마다 양동이에 그녀가 손수 물을 길어서 키웠기 때문에 “그들은 내 마음속에서 자식과도 같다”라고 말할 정도로 공감하고 교감하는 소중한 존재이다(219). 마치 소로우가 대지를 설득해서 “여름 생각”을 콩으로 표현하게 하듯이, 안토니아도 양동이로 손수 퍼온 물을 주면서 메마른 네브래스카 초원의 대지를 설득하여 잠재된 생명력을 풍성한 과수원 숲과 농장으로 표현하게 했다고 말할 수 있다. 짐이 묘사한 대로, 안토니아의 농장은 사람뿐만 아니라 야생 식물과 동물들도 함께 생명을 유지하는 햇볕과 풍요가 가득한 개방된 장소로서 그녀가 자신의 노동으로 대지와 교감하며 이룬 하나의 예술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219-20). 소로우는 “손으로 하는 노동”은 “변하지 않고 영원한 도덕적 교훈”을 가지고 있으면서, 학자들이 그러하듯이 “최고의 성과”를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는바, 안토니아의 농장도 그런 예술에 가까운 “성과” 중에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W* 123). 이와 관련하여 소로우는 “옛 시와 신화에서 농업은 적어도 한때는 신성한 예술”이었다고 하며, 작금은 “탐욕”과 “이기심” 그리고 “땅을 재산 또는 재산을 얻는 수단”으로만 보는 “저열한 습성” 때문에 농촌의 풍경은 기형적으로 변했고, “농사”(husbandry)는 타락했으며, 정작 농부들은 가장 비천한 삶을 산다고 한탄한다(*W* 129).

더욱이 자연 속에서 인간과 비인간이 교감하고 공존하는 안토니아의 농장과는 달리 탐욕과 이기심에 쫓기는 타락한 농사를 짓는 농부는 자연을 단지 “강도”의 관점에

서 약탈적인 소유의 대상으로 인식하며, 이는 동물이나 식물 등 자연의 타자들을 농부 자신의 이익을 해치는 위협으로 보는 졸렬한 비극을 초래한다고 소로우는 지적한다(*W* 129).¹¹⁾ 대표적으로 소로우는 콩코드 부근에 있는 또 다른 호수인 “플린트 호수”(Flint’s Pond)의 천박함을 예로 들고 있다. 이 호수는 월든 호수에서 멀지 않는 곳에 있는, 이 지역에서 가장 큰 호수여서 수많은 종류의 동물과 수생식물이 자생하고 있지만, 참다운 눈으로 호수의 아름다움을 바라본 적이 없는 어느 탐욕스러운 농부가 자신의 이름을 따서 “플린트”라고 명명한 호수이다. 햇빛에 반짝이는 호수의 아름다움보다 번쩍거리는 1달러짜리 은화를 더 좋아하는 이 농부는 심지어 호수에 잠서 머무는 “야생 물오리들”을 “무단 침입자”로 간주하는 사람이다(*W* 153). 이 농부의 태도는 안토니아가 자신의 농장 주위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를 존중하는 태도와는 상당히 대비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플린트라는 콩코드의 농부는 노동의 타락을 자초하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모든 자연의 사물들과 노동을 포함하는 생명 활동들을 “환금 가치”로 측정하기 때문에, 자신의 노동을 창조적 생명 활동이 아닌, 돈과 시장가치에만 종속된 행위, 즉 자연의 존재적 가치를 무시하고 단지 상품 가치로 변형시키기 위해 자연을 전복적으로 파괴하고 착취하는 행위로 자신의 노동을 전락시켰기 때문이다. 소로우는 이 탐욕스러운 농부가 그의 타락한 노동으로 일군 플린트 농장이 소위 “모범농장”(model farm)이라고 불리는 당시 미국 사회에 만연한 상업적 농장의 전형이라고 말하며 이 농장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모범농장! 집이 버섯처럼 퇴비 더미 위에 세워져 있고, 사람, 말, 소, 돼지들의 방들이 깨끗하거나 더럽거나 상관없이 서로 다닥다닥 붙어 있다! 가축들이 사람들과 함께 사육되는 곳! 가축의 분비물과 버터밀크 냄새로 가득 찬 기름처럼 느끼한 거대한 장소! 사람의 심장과 뇌를 퇴비와 섞어서 최첨단으로 경작된 곳이다! 마치 교회 묘지에서 감자를 재배하는 것처럼! 모범농장이란 그런 곳이다. (*W* 154)

이 플린트 농장에서는 타락한 노동이 호숫가의 풍경과 생명체들을 포함하는 자연의

모든 사물에 가격표를 매겨 시장에 내다 팔기 위해, 이 아름다운 자연을 불결하고 그로테스크한 기형적 장소로 전락시킨다. 소로우가 말한 대로 이 농장에서 땅은 곡식을 생산하지 못하고 풀밭에서는 꽃이 피어나지 못하고,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오로지 “돈”(dollar)만 생산하는 농장이 되었다(*W* 154). 비록 플린트라는 농부는 부자가 되었을지언정, 그가 행한 타락한 노동은 자연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사는 그를 포함한 인간들도 돈을 생산하기 위해 퇴비가 되는 그런 생지옥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소로우는 부에 대한 욕망이 농부의 눈을 멀게 하여, 호수라는 하나의 자연 현상을 감싸는 진정한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는 역설을 한탄하며, “진정한 부”를 즐길 수 있는 상태는 “가난”이라고 말한다. 그는 농부들의 가난에 비례하여 그들에 대한 존경심과 관심 또한 비례한다고 주장한다. 소로우의 주장이 좀 과장된 면이 있지만, 그가 말한 종류의 가난이 자연의 아름다움이라는 진정한 부를 즐기게 만드는 전형적인 예가 바로 『나의 안토니아』에서 후반부에 등장하는 안토니아의 ‘가족 농장’이라고 말할 수 있다. 플린트 호수를 소유한 농부처럼 부자도 아니고, 그의 농장처럼 시장이 요구하는 상품을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생산성도 없지만, 자연 속에서 비인간과 인간이 생명의 연대를 이루는 자기충족적인 노동으로 일군 농장에서는 플린트 농장에서 볼 수 있는 기형적 천박함의 기괴성을 찾아볼 수 없다.

이 과수원에는 아주 깊은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 . . 울타리는 너무나 높아서 우리는 그 위로 푸른 하늘만 볼 수 있었고, 헛간 지붕이나 풍차도 보이지 않았다. 오후의 태양이 말라가는 포도잎 사이로 우리에게 쏟아져 내렸다. 과수원은 마치 하나의 컵처럼 태양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았고, 우리는 나무에 열린 잘 익은 사과들의 향기를 맡을 수 있었다. 야생사과들은 목걸이에 걸린 구슬처럼 가지에 뽁뽁이 매달려 있었고, 자줏빛 붉은색의 얇은 은빛 윤기가 그 사과들 표면에 감돌고 있었다. 암탉과 오리 몇 마리가 울타리를 뚫고 들어와 떨어진 사과들을 쪼아 먹고 있었다. . . . 우리는 소를 가까운 헛간의 모퉁이로 몰아왔고, 소년들은 땅거미가 지는 동안 소의 젖을 짜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그렇듯이 제자리에 놓여있었다: 이슬에 젖은 해바라기와 야생국화에서 풍겨오는 강렬한 향기, 맑고 푸른 황금빛 하늘, 저녁샛별, 양동이에 우유를 붓는 부드러운 소리, 저녁 식사

를 먼저 먹겠다고 다투는 돼지들이 꿀꿀거리며 우는 소리. (219-23)

플린트 호숫가의 “모범농장”에서는 냄새나는 퇴비 더미에 둘러싸여 사람의 심장과 뇌가 동식물과 함께 마치 가족처럼 자본주의 시장을 위해 사육당하는 곳이지만, 안토니아의 농장에서는 네브래스카 초원의 대지 위에서 나무와 풀, 동물과 인간, 하늘과 태양, 그리고 별과 바람이 하나의 자연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 듯이 보인다. 비록 부를 축적하거나 생활이 풍족하지는 않지만, 자연의 일부를 일구면서 동시에 자연으로 돌아가는 본질적인 노동을 바탕으로 안토니아는 햇살이 나뭇잎을 비추면서 맺어진 사과를 닭과 오리들과 나누고, 해바라기와 야생국화가 공존하며 피어있는 그런 농장에서 가족들과 함께 황금빛 저녁노을과 저녁별을 감상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생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아름다운 월든 호숫가에서 손수 오두막을 짓고 정말 필요한 만큼만의 노동을 농사와 사냥에 할애하면서, 숲과 호수, 그리고 야생 동식물 등의 활기로 가득한 자연 생태계를 몸으로 체험하고, 이를 통해서 “삶의 모든 정수”와 “인간존재의 근본적인 법칙”에 다가가려는 소로우의 삶은, 가난한 보헤미안 이민자의 딸로 태어나 굴곡진 인생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신의 본질적 노동으로 이룬 농장에서 소박하지만, 근본적으로 풍요로운 일상을 보내는 안토니아의 인생 여정과 상당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V. 나아가며

지금까지 중서부 대초원을 배경으로 『나의 안토니아』에서 펼쳐진 안토니아의 개척자이자 노동자로 사는 삶과 노동의 의미에 대해, 미국 동부의 지식인이자 노동자인 소로우가 『월든』에서 천착한 본질적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의 삶에 대한 생태 친화적 담론을 바탕으로 논의했다. 소로우는 당대 미국이라는 초기 산업자본주의 사회에서 만연한 현상인, 인간을 위한 노동이 아니라 노동을 위한 인간, 농부를 위한 농장이 아

나라 농부의 피와 살을 먹고 사는 농장이라는 기형적 전도에 대해 『월든』에서 신랄한 비판을 하고 있다. 이런 인간과 자연을 파괴하는 전도적 현상을 넘어서기 위해 그는 월든 호숫가에 오두막을 손수 짓고, 자본의 상품 논리에 지배되는 소외되고 타락한 과도한 노동을 배척하고, 필수불가결하고 본질적인 노동을 자연 안에서 행함으로써, 자연을 타자화시키면서 착취하거나 투쟁하는 것이 아닌, 자연 자체의 일부가 되어 “삶의 모든 정수”를 풍요롭게 실현할 수 있는 소박하지만 진정한 삶을 위해 2년여 동안의 실천적 생활을 영위하였다. 이에 상응하는 의미에서 『나의 안토니아』에서의 안토니아 또한 네브래스카 대초원이라는 자연 안에서 노동자로서 역동적으로 교감하는 본질적인 노동을 통해서 자연의 보편성을 실현한 가족농장을 이루었고, 이런 그녀의 삶과 농장은 소로우가 꿈꾸어 왔던 자연 친화적인 삶과 농업의 자유로운 풍요로움을 어느 정도 실현한 이상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자연을 포함한 모든 사물을 금전적 가치로 환산하는 산업자본주의의 거대한 물결을 넘어서, 자연의 한 일부로서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인간 삶의 근본적 법칙을, 자연을 타자화하는 착취가 아닌, 자연과의 역동적인 상호교감을 하는 본질적 노동을 통해서 삶의 정수를 실현하는 삶을 염원하고 실천했다는 의미에서 소로우와 안토니아의 본질적 노동의 정신은 월든 호숫가의 오두막에 함께 깃들여 있다고 해도 그리 과장은 아닐 것이다.

Notes

- 1) 예를 들어 러시아 이민자들인 파벨(Pavel)과 피터(Peter)가 고향에서 갓 결혼한 신랑과 신부와 함께 마차로 눈 덮인 겨울 별판을 가로질러 마을에 돌아오던 중 늑대 무리를 만나 쫓기다가 신랑과 신부를 마차 밖으로 던지는 음울한 우화 같은 이야기나, 맹인 다노(Blind d'Arnault)라고 불리는 흑인 천재 가수 삼손(Samson)의 어린 시절, 워커 커터(Wick Cutter)가 유산 상속 문제로 아내를 사살하고 본인도 자살하는 사건 등이 있는데, 이런 단편적인 일화들 모두가 소설의 플롯에 유기적으로 연결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 2) Willa Cather, *My Antonia*. Houghton Mifflin Company, 1988. 앞으로 이 소설에서의 인용은 쪽수만 명기한다.
- 3) 『나의 안토니아』에서 단속적으로 여러 일화가 등장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이 작품이 상당히 캐더의 자서전적인 소설이라서, 캐더의 유년기 기억 속에 있는 실제 일화들을 작품에 옮겼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한 인간의 사적인 기억은 문학 작품의 플롯과는 달리 유기

적인 연속성을 기대하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소설의 사적인 면과 관련하여 안토니아의 실존 인물이라고 잘 알려진 “애니 파벨카”(Annie Pavelka)와 캐더는 작가로서 성공한 이후에도 상당히 사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지속해서 맺고 있었고, 파벨카 부친의 실제 자살에 관련된 정황은 소설에서 묘사된 안토니아 부친의 자살과 상당히 유사하다. 샤론 오브라이언(Sharon O'Brien)에 의하면 이런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정서적 유대감과 사적인 기억의 존중이라는 이유로 애초에 캐더는 『나의 안토니아』가 “문고판”으로 출간되거나 영화로 각색되는 등 “대중”에게 상업적으로 소비되는 것을 꺼렸다고 한다(460-71).

- 4) 각 10행으로 구성된 3연으로 이루어진 이 사무엘 우드워스의 시는 “오래된 참나무 양동이, 철 테가 둘러 얹힌 양동이/ 우물에 매달려 있던 이끼 덮인 양동이.”(“The old oaken bucket, the iron-bound bucket,/ The moss-covered bucket which hung in the well”)라는 두 행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면서 “초록 이끼가 낀 가장자리에서 그것을 받아 마시던 순간의 달콤함이며, / 우물 가장자리에 기울어 내 입술로 다가오던 그 물의 맛이여”(“How sweet from the green mossy brim to receive it,/ As poised on the curb it inclined to my lips”) 라고 말하며 농장에서 보낸 유년기의 순수를 회상한다.
- 5) 미국 농촌지역을 낭만화한 “미국의 목가”(American Pastoral)라고 불리는 신화의 주인공은 직접 노동하는 농부가 아닌 중산층 출신의 “지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신화는 “자족적인 가족 농장”을 대표적인 전형이라고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상당히 드물다고 할 수 있다(Farris 27-28). 알렉산드라 역시 노동계급 출신이 아닌 “독립적인 지주”이지 “고군분투하는 농부”라고 할 수 없다.
- 6) 캐더가 『나의 안토니아』에서 등장하는 프랜시스 하링(Francis Harling)의 모델이 된 절친인 캐리 마이너 셔우드(Carrie Miner Sherwood)에 “애니 아버지의 죽음은 나에게 아주 큰 인상을 남겼다. 사람들은 그 세세한 것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나는 그때부터 나는 안토니아를 집필할 운명이라고 생각했다. 만약에 내가 그 무언가라고 쓴다면”이라고 고백할 정도로 애니 파벨카는 안토니아의 문학적 분신이며, 짐 역시 캐더의 소설 속의 자아라고 할 수 있다(O'Brien 469 재인용).
- 7) Henry David Thoreau, *Walden and Other Writings*. Edited by J. Britton-Purdy, Norton, 2023. 앞으로 이 책에서의 인용은 ‘W 쪽수’로 표기한다.
- 8) 이 올가미에 걸려 죽은 고양이의 일화는 아마도 빛을 갉으며 근근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행하는 소외된 노동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어 몸부림치는 노동자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 9) 소로우는 동물의 노동력을 이용하기 위해 소나 말을 키우고 길들이는 행위는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고 비효율적이어서, 결국에는 농부가 가축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축이 농부의 주인이 되는 비극적 전도가 촉발된다고 지적한다(W 44).
- 10) 소로우는 시장과 상업 자체에 대해서는 그리 부정적이지는 않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가

『월든』의 1장에서 “장사는 모든 것을 망친다.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취급하는 사업이라도 장사에 따르는 저주는 피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주장해서 소로우가 시장경제 자체를 죄악시한다는 오해를 할 수도 있다(54). 그러나 소로우는 시장에서 나타나는 탐욕을 경고한 것이지, 시장이 중립적이라면 시장과 상업 자체는 그리 나쁜 게 아니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Mckelvey 448-50). 한 예로, 소로우는 『월든』에서 “상업이 내 마음에 드는 것은 그 진취적 기상과 용기 때문이다”라거나, “상업은 예상과는 달리 자신감 있고 차분하며, 기민하고 모험적이며 지칠 줄 모르는 일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한다(92-93).

- 11) 콩밭을 농사짓다 보면 수확의 일정부분은 우드 칙(woodchuck)과 같은 동물의 몫이며, 콩밭에 자라나는 잡초 또한 새들을 위한 주식이 되기 때문에, 진정한 농부는 마치 숲에 사는 다람쥐가 도토리가 열리는 것에 관해 걱정하지 않듯이 자신이 밭에서 수확한 생산물에 대한 집착에 벗어나서 자연에 함께하는 다른 존재들과 나누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소로우는 주장한다(W 129).

인 용 문 헌

- Cather, Willa. *My Antonia*. Houghton Mifflin Company, 1988.
- ____. *A Lost Lady*. Vintage Books, 1971.
- ____. *O Pioneers!*. Bantam Books, 1989.
- ____. Letters to Carrie Miner Sherwood. 9 Dec. [1919]; 27 Jan. 1934. Willa Sibert Cather Collection, Nebraska State Historical Society.
- ____. *The Song of the Lark*. Houghton Mifflin, 1965.
- Dyck, Reginald. "Willa Cather's Reluctant New Woman Pioneer." *Great Plains Quarterly*, vol. 23, no. 3, 2003, pp. 161-73.
- Farris, Sara. "American Pastoral in the Twentieth-Century: O Pioneers!, A Thousand Acres, and Merry Men." *Interdisciplinary Studies in Literature and Environment*, vol. 5, no. 1, 1998, pp. 27-48.
- Mckelvey, Seth. "'But one kind' of Life: Thoreau's Subjective Theory of Value in Walden." *Nineteenth-Century Literature*, vol. 70, no. 4, 2016, pp. 448-72.
- O'brien, Sharon. "Possession and Publication: Willa Cather's Struggle to Save 'My Antonia.'" *Studies in the Novel*, vol. 45, no. 3, 2013, pp. 460-75.
- Pavelka, Anna. Letters to Willa Cather. 31 Oct. 1934; 5 Apr. 1936. Robert and Doris Kurth Cather Collection, U of Nebraska-Lincoln.
- Thoreau, Henry David. *Walden and Other Writings*. Edited by Jedediah Britton-Purdy, W.W. Norton & Company, 2023.
- Walker, Brian. "Thoreau's Alternative Economics: Work, Liberty, and Democratic Cultivation."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92, no. 4, 1998, pp. 845-56.
- Wienen, Van. "Men (and women) of Iron: Labor, Power, and the Railroad in Willa Cather's Novels." *Modern Fiction Studies*, vol. 62, no. 2, 2016, pp.

236-71.

Wood, Gordon S. *The Radicalism of the American Revolution*. Alfred A. Knopf, 1992.

Abstract

Antonia Living in Thoreau's Cabin: Rereading Willa Cather's *My Antonia* in light of *Walden*.

Lee, Jun Young
Yeungnam University

My Antonia has been critically celebrated as one of Willa Cather's Nebraskan novels of the ecological ideal in which humanity and nature harmoniously go together to compose the environment itself. To achieve this ecological ideal of para-human environmentalism, the labor of the human being works as the most essential factor since it is the activity of labor by which human beings as part of nature interact with nature to subsist in the natural environment. However, the true meanings and values of the nature-friendly intrinsic labor, not the alienated market-oriented one, accomplished by Antonia Shimerda, the pioneering protagonist of the novel, have not been sufficiently explored in *My Antonia* because the ecological and existential significance of her intrinsic labor on the Nebraskan prairie cannot be truly appreciated by Jim Burden, who is the sole narrator of the novel. Although Jim shares the childhood memory with Antonia in the Midwestern prairie, he has pursued an upper-class career of big-business lawyer, so that he would not be able to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Antonia's intrinsic labor. Therefore, this essay attempts to analyze the essential meanings of Antonia's intrinsic labor for pioneering her family farm on the Great Prairie, which is in dynamic harmony with nature itself, in light of Henry David Thoreau's ecological discourse of labor in his *Walden*. By building a cabin with the spirit of "voluntary poverty" on the shore of Walden Pond in Concord, he pursued "the essential laws of man's existence" and wanted to define "all the marrow of life" by doing intrinsic labor, not deprecated and excessive

one. In this regard, Antonia and Thoreau share the true value of ecological environmentalism in their works of practicing intrinsic labor for achieving simple but self-sufficient independent life in nature.

Key Words: intrinsic labor, environmentalism, ecology, wage-laborer, homestead.

논문접수일: 2025.1.15

심사완료일: 2025.1.30

게재확정일: 2025.2.08

이름: 이준영

소속: 영남대학교 영어교육과 교수

이메일: wbenjamin@ynu.ac.kr